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제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제의 고난을 받은 자는 꾀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계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의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쪽하도다

4.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이 안 까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인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제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최봉우 목사

2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u>육체의 남은</u>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u>너희도 같은</u>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이 <mark>죄에 대한 자세를</mark> 강조합니다. "죄를 그쳤으니"

왜 거룩한 나그네들인 우리가 죄와 짝할 수 없고 죄에 대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요일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u>하나님의 뜻을 따라</u>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 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은 가볍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천박한 이 땅에서의 쾌락이 아니라 차원 높은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3.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행 26: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죄된 삶의 방식에 통참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향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열망하며 애써야 합니다. AMEN CHURCH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